

무안국제공항 개항 한달 앞으로...

■미리가 본 공항

최첨단시스템 탑승수속 '논스톱'

“이제 비행기만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한 달가량 앞둔 10일, 공항시설 시험가동에 나선 허재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장은 “국제선이 취항하기 위한 공항시설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오는 25일 항공기 시험비행을 마지막으로 개항준비가 모두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가상승객 100명과 화물 가람 50개를 동원, 무안공항의 승객 탑승 및 화물 적재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다. 가상승객으로 참여한 무안고등학교 학생들과 목포시청 직원, 그리고 공항운영팀은 공항라운지 입장에서부터 탑승권 교부, 보안검색, 비행기 탑승, 세관통과에 이르기까지 여행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일일이 점검했다.

가상승객들은 공항 1·2층 라운지의 환한 모습과 탁 트인 전경, 그리고 공항 청사 전면에 펼쳐진 2.8km길이의 활주로를 바라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가상승객으로 참여한 유상보(51·목포시청 직원)씨는 “규모는 작지만, 환하고 짜임새 있는 모습이 마치 인천공항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뿌듯해 했다.



개항을 한 달 가량 앞둔 1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공항시설 시험가동'에서 가상승객으로 참여한 무안고등학교 학생들이 공항청사 2층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무안=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검색·심사 불편없어...25일 시험비행 국내 5번째 규모...年 519만명 이용

실제로 호남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지역거점 공항으로 개발된 무안국제공항은 256만7천㎡(78만평)의 부지에 지난 1997년 3월부터 모두 3천여억원을 들여 지어진 최첨단 건물이다. 1년에 519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2만9천106㎡(8천800평)의 여객터미널과 역시 1년에 5만여명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그리고 동시에 2천9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활주로는 1개뿐이지만 1년에 14만회의 비행기 운항이 가능하다. 3개의 탑승교(공항청사와 비행기를 연결하는 다리)와 9개의 주기장(비행기가 멈춰서는 곳)을 갖추고 있어, 규모만으로 따지면 국내 9

개 공항 가운데 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 이어 5번째다. 이원형 건교부 무안공항출장소장(49)은 “현재까지 공항시설이나 운영시스템에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개항까지 남은 한 달여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 승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의 대 중국·동남아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인근 30분 거리에 있는 광주공항과의 갈등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무

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가져와야 하지만 당장 광주시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양한 국제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초기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달말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안공항을 이용할 주 40여편의 국제선 가운데 상당수가 타이완~중국 대륙을 왕복하며 잠시 무안에 기착하는 환승항공편인데다, 나머지도 일본 후쿠오카, 중국 베이징 등 단거리 노선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제선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공항이 문을 연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까지 완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 초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자 redplane@

체전참가 87% “광주 음식 최고”

경기장·교통시설 “만족”...문화체전 “대체로 성공”

총감독·단장 설문조사

■음식



■문화체전 성공 여부



제88회 광주 전국체전에서 음식·경기장·교통시설은 대체로 양호하나, 선수·임원들의 문화체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7·8·20·22·23면〉

광주일보사가 이번 체전에 출전한 서울·경기 등 15개 시·도 선수단(광주시 제외) 총감독, 16개 해외동포선수단장 등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2%가 ‘광주 음식이 맛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9.6%, ‘불만족’은 3.2%에 그쳤다.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61.3%,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54.9%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1.7%가 만족한다고 한 가운데, 22.5%가 불만족이라고 답해 광주의 숙박 시설에 대한 일부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친절·공중도덕·대회 운영 등 국제도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48.4%가 “그렇다”, 23.3%는 “보통”, 16.1%가 “아직 멀었다”고 답했다. ‘문화행사 참여’나, ‘문화체전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42%가 “직접 참여했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9.0%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영국동포선수단 서동현 단장은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광주만큼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는 등 모든 게 풍부해 살고 싶은 정도”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15개 시·도 선수단 총감독 중 상당수는 “숙박시설 요금이 예상보다 비쌌다. 일부 호텔에서 성인방음이 여과없이 방영돼 어린 선수들이 걱정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은미·강필성 기자 emlee@

전국체전 히어로

유도 ‘김지윤’...2년 연속 2관왕



“2년 연속 2관왕에 올라 기쁘고, 더욱 열심히 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10일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여자 고등부 무제한급과 78kg급 이상 두 체급에서 2관왕에 오른 김지윤(전남체고 3년)은 올림픽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김지윤은 지난해 체전에서도 이 체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보성초교, 전남체육중을 졸업한 김 선수는 전남체육중 2학년 때 이상현(30·현 전남체고) 코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해 중3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김 선수는 고 2 때부터 승부사의 본능을 드러내며 전국 최강에 올랐고, 3학년인 올해는 물오른 기량으로 기록 작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관왕을 차지했던 김 선수는 올해 국내대회 15관왕에 오르며 기업을 토했으며 2월 홍콩오픈, 5월 직지컵, 7월 범태평양대회 78kg급 이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고수로 각광받고 있다. 순발력과 손기술·발기술이 다양한 김 선수는 잡기기술만 보완하면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쥌 수 있는 한국 유도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2,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이어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11면〉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6.99포인트(1.34%) 오른 2,041.12로 장을 마쳐 증가기준으로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중 2,044.78

까지 올라 8일 2,022.01, 9일 2,022.87에 이어 장중 사상최고치도 사흘 연속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5.46포인트(0.67%) 오른 818.26으로 마감,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1천12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천150조4천억원,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110조1천억원으로 시장별로도 역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부대학교, 진남과학대학

Photonics Festival 光 산업의 날 축제 한마당